

2017년 12월 7일, 애월읍 금성리 고행일 씨 댁, 이효순 조사.

고행일(남, 1941년생, 애월읍 금성리)

- 줄거리: 백정을 했던 사람이 돈을 벌게 되니 힘을 행사하며 칼잡이 성질을 드러내는 바람에 동네에서 못 살게 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. 석 달이 지나 이사간 동네의 개들이 그 사람만 지나가면 짖어대자, 마을 사람들이 수상히 여겨 조사를 하였는데 개들이 오래 전에 백정을 했던 그에게서 피 냄새를 맡고 짖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. 마을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던 그는 결국 그 마을에서도 살지 못하고 떠났다.

[제보자] 우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얘기가, 옛날에 어디 백정놈이 백정질 허다가 이제 우리 동네 왔는데, 견디, 일본, 중국은 백정을 하나의 기능공으로 인정을 해 주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부터는 그때 시절에 아주 천한 직업으로 헤가지고 햇는다. 그런 사람이 우리 동네 와가지고 이제는 밥이나 좀 먹어지고 헤지난 어깨에 힘을 줍 가지고 칼잡이 성질을 그대로 나타내어가지고, 아, 이제는 동네 사람덜이 무섭고 추잡스러워 가지고 상대를 안 허는 거라. 일절.

경 허난 이 사람이 이런 데는 살 수 없다 헤가지고 이제는 아주 먼 곳에 식구를 데리고 가서 이사를 햇는다, 거기에서는 뭐냐 좀, 기본 돈 모은 거 있으니까, 강 토지 깨나 사고 헤가지고 멧 년 지내는디, 거기서도 본성이 드러나서 햇는다, 하필이면 동네 개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, 또 심지어는 옷 바짓가랑이를 물어가지고 징끗징긋 잡아다니고 이렇게 헤가지고 귀찮아 가지고, 그것도 하루 이틀인디. 둘이 지나곡 세 둘이 지나도 그 사람만 가면 동네 개들이 막 모다들엉 허니, 이것이 동네 사람덜이 이상하게 생각허여가지고,

“하이고, 저 사람만 지나가믄. 누게 아방만 지나가면 개들이 모여들엉 짖구니 조사를 해 봐야겠다.”

그 동네에서도 민심을 잃어 가지고 느시 살지 못 허영 떠났습니다. 개는 그런 피냄새 때문에 막 모다들언 짖으니, 본성이 나타나 가지고 살지 못하겠다고 이사를 갔는데 그루후젠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, 그렇게.

사람은 본래부터 어진 마음을 갖고 살아라 허는 거. 옛 어른덜안테 그런 얘기 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.

- 핵심어: 백정, 본성, 칼잡이, 개, 피 냄새, 동네